

'내 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토·크

이런 글을 쓰는 저에게, 불륜이지만 슬픈 사랑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유부녀인 여자분이 유부남인 남자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이야기더군요. 그 남자에게 이분은 운명같은 사랑이지만 아내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어서 이혼을 못한답니다. 남자의 아내는 아침밥을 해준적이 없다는군요. 잠자리도 싫어하고, 살림도 엉망이고 요리도 안하고 본인 치장 외에는 관심이 없답니다. 시댁에도 잘 못하고 남편을 그저 돈벌어오는 기계로 취급한다는군요. 남편을 잘 공경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집안 살림도 출렁하고 시댁에도 나무랄데가 없는 이 여자분은 그런 대접을 받는 남자가 불쌍하고 그 부인이 너무 맑다고 하는군요. 시댁에 다녀온 이야기, 요리 이야기를 해주면 그 남자는 슬픈 눈으로 말하답니다. 당신은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텐데... 그래서 둘이 불고 운동도 많았다는군요.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나가고 섹스도 최선을 다해합니다. 그 남자는 일주일에 한번, 이분을 만나고 섹스하는 그 시간만이 인생에서 유의미한 시간이랍니다. 평생동안 만나기 위해 서로의 약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이상한 결론에서 좀 깨기는 했지만, 메일을 읽으며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직접 보셨나요? 정서적 교감까지 갖는 안전한 상대와,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짜로 섹스할 수 있다니, 그 남자 완전 팽팽았군요. 그렇게 사랑하는



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했어요? 운명의 사랑인 당신이 다른남자(당신남편)와 섹스하는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저 책임감으로만 살고 있는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자꾸 눈 뒤집어서 칼부림 할걸요? 근데 아침밥 안하는게 바람피우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질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문이 쓰아지려고 했지만 두분의 사랑앞에서는 비뚤어진 제 심성도 제자리를 찾고 숙연해지더군요.

문득,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송고한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하지요. 두주며 불끈 쥐고 30초의 장고 끝에, 모든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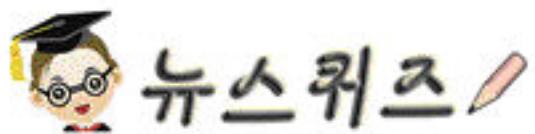
지금이라도 당신을 만난게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전재산 부인에게 주고
달려오라고 하세요.

는 기본에 충실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 풀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인생이 달라졌을거라고 말한거, 그게 키포인트지요. 늦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견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을 만났으니 불행중

다행이지요. 이제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면 되는겁니다. 그 못된 마녀같은 부인은 '책임'으로 그 남자를 육아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남편을 돋벌어오는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앞으로 평생동안 월급을 보내면 되겠네요. 돈도 받고 시택 안가도 되는데, 잠자리도 없고, 바람피우는 남편에게 아쉬울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은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무일푼이더라도, 당신이 멀여살려야하더라도 별 문제없을겁니다. 사랑하는데 돈 따위가 중요할 리가 없으니까요. 현모양처의 화신인 당신이, 남편을 속이며 만날만큼 운명적인 사랑이잖아요. 옥탑방에 살더라도 당신이 그 남자의 인생을 바꿀 테니, 두분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거예요. 지금 당장 그 남자에게 전화하셔서 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 남자도 기뻐할겁니다.

이젠 1년 365일이 죄다 유의미한 시간이 될테니까요. 불행한 한 남자의 인생이 사랑의 힘으로 구제되는 순간이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겁니다. 뒷이야기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54. 한국 입양아 출신 미국 스키 스타가 최근 한국에 사는 친아버지와 26년만에 상봉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를 확인한 이 선수는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을 딴 뒤 한국계 입양아임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토비 도슨 ② 하인스 워드
- ③ 우르술라 메이스 ④ 소냐 크로퍼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과크로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답장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음 1월 20일 壬寅)



36년생 고역은 없으나 마음 놓고 지내라. 48년생 새로운 회망의 설계가 있고 협조자나 친구나족이 나타난다. 60년생 새로운 사업 구상을 제기 받고 조직이 생긴다. 72년생 신중하고 긴 암복으로 협력자를 돌아보라. 84년생 여행을 삼가하고 실천으로 보여줘라. 행운의 숫자 : 19, 31



37년생 집나간 자식이 돌아온 형상이나 결과는 허망하거나 있다. 49년생 뭘 뒤 둘한 구상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다. 61년생 낭설은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라. 73년생 대문 암과 벼를 살펴보면 물失落를 예방한다. 행운의 숫자 : 06, 28



38년생 회는 많고 길한 일은 적으니 변화를 자제하라. 50년생 부부 사이의 길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보내라. 62년생 적은 돈의 소비가 있다. 74년생 역습을 당하는 형상이나 큰 불편한 일은 행운의 숫자 : 24, 27



39년생 길사는 적고 흑사가 많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51년생 규모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려면 대손은 없다. 76년생 자신의 일을 접점하고 뒤돌아보라. 75년생 원한 많았던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23, 43



40년생 상문으로 식구가 좋 수도 있다. 52년생 내용으로는 통한 듯 하나 일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64년생 의욕적인 추진은 있으나 계자질결입니다. 76년생 결은 미려하지만 내부는 아름답지 못하다. 행운의 숫자 : 16, 22



41년생 初行 길은 불편하고 낯설다. 53년생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배가 되어 당황하리. 65년생 금히 서두르면 큰 손해가 온다. 77년 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2, 44



42년생 새로운 소식은 있으나 서둘지 마라. 54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지막 더한 조심도 같이 해야. 66년생 배인 혼에 애사가 발생 할 수도. 78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손해수가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43



43년생 앞으로의 불편한 일을 예측하고 있어야 한다. 55년생 길이 답답하고 안보이나 숨통은 확 트인다. 67년생 직장의 흐름을 읽어보라. 79년생 자녀문제가 발생하니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42



44년생 서로 경쟁하듯 나가니 흉하고 길은 점다. 56년생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드는 행운은 되지 않는다. 68년생 듅보다는 실이 많고 흉이 발생한다. 80년생 서비스를 짜는 송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인내하라. 행운의 숫자 : 13, 41



45년생 겉으로는 협조가 이루어진 듯 하나 결과는 미미하다. 69년생 절대로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81년생 백사가 불상하니 신종을 고려하고 기다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39



46년생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접경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길이 있다. 70년생 아는 도끼에 밭을 찍히니 경기방동하지마라. 82년생 장기간 음식에서 벗어난 기쁨이 다 고운다. 행운의 숫자 : 15, 33



47년생 생기가 발신하고 옛정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 59년생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라. 71년생 재수는 바리지 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 83년생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팬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정정 키워드

검색

연예인들의 열애 소식으로 인터넷 '화끈'

연예인들의 열애 소식으로 인터넷 '화끈'

혁의 '죽을만큼' 등을 연출했으며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가수 박지윤(25)과 영화 및 CF 감독인 응이(38) 감독의 열애설, '삼식이' 현빈과 신인 텔런트 황지현이 교제 중이라는 소식, 안재욱과 외국인 여배우 페리엘도 열애설이 돌면서 겹겹이 펼쳐졌다.

최근 치과를 고스란히 드러낸 섹시 의상으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서인영(23)의 모바일 화보도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았다.

스타 화보를 본 네티즌들은 섹시미와 청순미 등이 돋보인다는 입소문을 내고 있다.

7일 새벽(한국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햄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 후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벨렌시아와 인터밀란 선수들의 난투극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텔런트 조여정(26)의 모바일 화보가 일부 공개된 뒤 네티즌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성형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볼륨 있는 몸매가 입소문을 타면서 네티즌들이 이곳저곳으로 퍼나르고 있으며 미니홀피도 방문자들이 폭주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화보집을 통해 섹시미를 유감없이 발휘한 조여정.

제35기 거함 무너지다 총보(1~211)

명인전 예선1회전

백 조훈현 9단

흑 조경호 초단

조훈현은 이창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바둑계의 화두였다. 제자인 이창호의 등장 이후 그 광휘가 시들긴 했지만 프로나 지망생들의 관심과 목표는 언제나 그들 사제에 집중된다.

신예들의 꿈은 바로 조훈현이나 이창호와 대국하는 것, 그리고 한번쯤 겪어보는 것이다. 입단 4개월째인 조경호는 조훈현 9단과 대국할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행운이 작용했다.

그런 시합에서 거함 조훈현을 신예의 신예 조경호가 무너뜨렸다.

대형사고를 친 것이다. 비록 조훈현이 노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 이렇게 거의 완

벽하게 한판을 이겨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조훈현이 상대를 약간은 경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터움보다는 빠른 34, 36, 40 등으로 대마를 방지하고 집자지에 치중하고 또 좌상귀에서 54로 불이이고 56으로 막는 악수를 무심코 두었는데 그것이 곧바로 배포로 이어졌다.

이후 조경호는 완벽하게 백의 곤마를 공격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들었다. 조경호의 장래가 기대되는 명승부였다.

이 대회는 정릉부, 백호부, 협무부, 주작부 등에서 우승자를 가린 뒤 각부 8강(주작부 4강)에 오른 기사들이 토너먼트로 왕중왕을 가린다.

바둑 소식

복진석, 전자랜드배 백호부 우승

복진석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백호부 결승에서 양건 7단을 158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복진석 9단은 현재 19승 2패를 기록하며 다음, 승률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복 9단은 현재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을 포함해 GS칼텍스배, KBS바둑왕전,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에 올라있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 대회는 정릉부, 백호부, 협무부, 주작부 등에서 우승자를 가린 뒤 각부 8강(주작부 4강)에 오른 기사들이 토너먼트로 왕중왕을 가린다.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57>

오하요우 니혼고 <857>

니하오 총구워 <48>

한자 이야기 <475>

These things happen

그럴 수도 있는거지

A: There's something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B: Oh? What is it?

A: I'm afraid the printer broke while I was using it.

B: Don't worry about it. **These things happen.**

A: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B: 응? 무슨 일일까?

A: 제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장이 난 것 같아요.

B: 걱정 마. 그럴 수도 있어.

talk to~ : ~에게 말을 드리다
I'm afraid~ : 유감스럽게도~하다
These things happen
= Everybody makes mistakes
= It could have happened to anyone

出來ちゃった結婚ということですよ